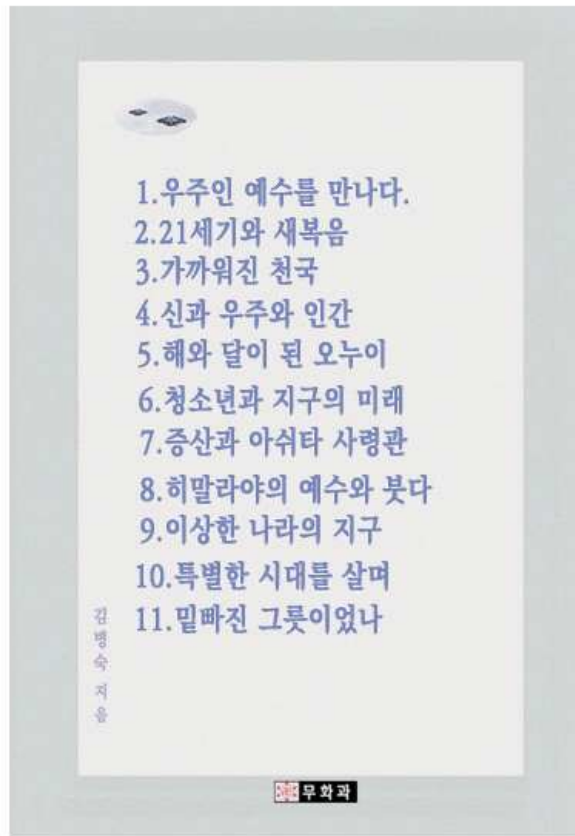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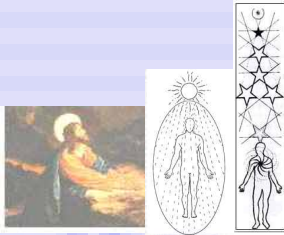
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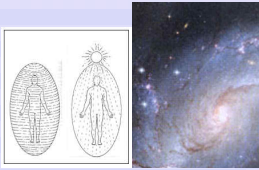
homepage 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33-1



인류는 지금 유아기에서 벗어나려고 보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나 교사들은 저들을 교묘히 짜놓은 요람에 묶어두고 잠재우려고 과거의 환상이라는 자장가를 부르며 토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자는 울지도 않고 자장가에 잠들지도 않습니다. 이미 요람은 더 이상 자기에게 적합한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지성과 영성을 자각하고 있는 호랑이는 다시 잠드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의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고통을 경험하며 충분히 실망했고, 그래서 과거의 그릇된 신념의 편린들을 말끔히 쓸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에게는 과거의 신념이 아니라 진리 자체에 근거한 보다 더 강하고 생명력있는 사고가 요구됩니다.



< 서문 >

아이작 뉴턴과 같은 시대에 역시 과학자로 살았던 스베든보리라는 스웨덴 사람이 있었다 한다. 그는 그 당시의 ‘접촉자’로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UFO와 수시로 만났고 그들의 세계에도 갔었다고 한다. 그가 보고 온 천국들은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장 높은 천국은 아주 어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악함에 물들지 않았던 영혼들의 세상이었다고 한다. 그 아래의 천국은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를 희생해 가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선구자들의 천국이고, 또 그 아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 생전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천국이었다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3계층의 천국들 그 위에 최상위의 천국이 있었는데 그곳은 아직 비어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 한다. 아마도 그곳은 3계층의 하늘나라 백성들이 지닌 모든 덕목들, 순수함, 선구자적 깨달음, 신앙인으로서의 봉사정신, 그 모두를 갖춘 성숙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스도 사난다님이 언급한 ‘제3의 에너지’라는 단어도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그리스도 자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참자야는 영혼적 순수성과, 봉사정신과, 지성적 깨달음이 무르익었을 때 발현되는 신성과의 합일상태라고 한다. 그런 상태를 왜 제3의 에너지라 했는지 사난다님의 설명을 들어보자.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결말은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라는 2원성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월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3의 에너지, 그리스도 에너지(성령)를 창조할 것이며, 그것은 양자(兩者)를 포용하고 초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신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¹⁾

1) 은하문명 간 ‘2012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에서 인용.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란 태양인들의 삶과 행성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인들은 개체의식이 아니라 전체의식과 집단주의로 살기 때문에 악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행성인들의 삶은 개인주의와 개체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양자를 포용하는 제3의 에너지**,란 물질육체를 가지고 행성에 살면서도 태양인들과 같이 전체의식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극복한 인격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성령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5차원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육체적인 오라(Aura)도 상승하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사난다님의 다음 설명을 들어보자.

여러분의 정신능력과 과학기술을 훨씬 앞서있는 은하인들은 여러분처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생명에 관한 연구와 지적 탐구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신의 법칙을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지만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랑의 감정이 없이 단지 지성적으로 그 법을 따릅니다.

느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태양인들의 육체가 무감각의 육체이기 때문이고, 사랑의 감정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성에 대한 욕구가 없고 5감도 없는 육체라는 뜻이다. 고차원으로 갈수록 중성이거나 성구별이 아예 없는 생명체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풍부한 감성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 가슴으로 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감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요.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신의 계획은 자유의지와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우주의 이 지역에서 새로운 종(種)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²⁾

자유 의지란 에덴동산에서처럼 지혜를 금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1원성이 아닌 2원성, 즉 남/녀의 양성으로 산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의 우리와 같이 감정과 감각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과 불안정성들 이대로는 제3의 길이 열릴수 없다. 다만

2) 은하문명 간 ‘예수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에서 인용.

모든 구도자들의 목표인 구원/성령/해탈에 도달했을 때 비로서 제3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만든 세상이 곧 제3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영혼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에서 양자 모두를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통합적 만족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제3의 길이요 제3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이 지역에서는 아직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것은 지구가 천사들과 그 후손에 의해 개척되었던 행성이기 때문이고 또 현재도 그만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 판단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금지와 희망으로 지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책제목에 ‘어머니 하느님’을 부제로 사용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느님’이 신의 권능이 아니라 신의 자비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학적으로나 종교 발전사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시대는 지나갔다. ‘아버지 하느님’ 대신에 ‘어머니 하느님’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개척과 투쟁의 시대를 거쳐서 21세기 문명을 건설했고, 이제 이 문명을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진화시키기 위한 화합과 평화의 시대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우주의 태초에 7분의 하느님들(엘로힘)이 계셨다고 한다. 그분들은 각기 특성을 가졌는데 그 중에는 사랑/아름다움의 특성을 가진 하느님도 계셨다고 한다. 7번째 대우주에서 우리 우주(네바돈 소우주)로 파견되신 주-임마누엘 대천사가 바로 그런 하느님에 해당될 것이다. 그분은 미카엘 대천사의 형님에 해당되는 혈통이며 미개한 행성들로부터 자신들이 승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라고 ‘유랜시아서’에서 소개했다. 이제 가부장적 ‘아버지 하느님’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어머니 하느님’의 자비를 배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016 8월 16일

저자 김 병숙

(사용된 인용문과 조각그림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 후에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차례 >

1부 히말라야에서 만난 예수/붓다

- | | |
|----------------------------|--------------------------|
| 1.재림 예수와 붓다...../11 | 26.세월과 시대를 뛰어넘는 교과서 |
| 2.행간의 의미들 | 27.아론과 멜기세덱 신권...../127 |
| 3.에밀 대사와의 처음 만남 | 28.모르는 게 약이다? |
| 4.유체이탈과 성령의 씨앗 | 29.완충시대와 하모니 합창단 |
| 5.침묵의 사원과 오병이어의 기적...../28 | 30.경계선에서의 여성의 역할 |
| 6.아메리카의 뜻있는 출발 | 31.고등자아는 왜 필요한가...../142 |
| 7.에밀 대사의 마을에서 보낸 유월절 | 32.이마에 받게 될 2가지 도장 |
| 8.재림예수와와의 만남 | 33.두 개의 전투행성 |
| 9.죽은 사람을 살리다...../48 | 34.어마어마한 우주전쟁 |
| 10.인간의 가능성과 책임 | 35.황소/플레야데스 별자리...../154 |
| 11.모세와 찬더 셴 | 36.3-4차원 학교를 졸업할 때 |
| 12.사자의 운명 | 37.상징물과 지혜의 시대 |
| 13.함께 나타난 예수와 붓다...../64 | 38.화룡점정의 신대감각 |
| 14.달빛 속의 합창과 종소리 | 39.다음생 환생에 관하여...../167 |
| 15.만물과 신적인 대원리 | 40.총정리의 장 |
| 16.연합 마적단의 침입 | 41.자유지와 자유선택 |
| 17.마적단과의 결전...../84 | 42.‘동쪽을 보라.’ |
| 18.두 가지 창조와 신인류 | 43.함께 기뻐하기 위함...../180 |
| 19.우주심(心)과 인간의 창조능력 | 44.그날이 오면 |
| 20.지구 태양계의 역사 | 45.요한계시록과 생명의 책 |
| 21.티벳의 수도 라싸로...../102 | 46.예수의 21세기적 가르침 |
| 22.회의론자와 예수의 만남 | 47.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며...../198 |
| 23.‘어른’의 나타남과 두 여성천사 | 48.마젤란 은하와 오스트렐리아 |
| 24.나르시스 에코 에로스 | 49.수퍼맨은 없다. |
| 25.곳간의 논리와 진화의 논리 | |

2부 붓다와 어머니 하느님

- | | |
|--------------------------|-------------------------|
| 1.임마누엘 대천사와 어머니 하느님 | 9.정치적 이상주의의 한계 |
| 2.어머니 하느님과 자유의 여신상 | 10.가슴으로부터의 자비와 영적 연결 |
| 3.불교는 무신론적 종교인가...../221 | 11.불성과 어머니 하느님...../248 |
| 4.가치관적 혼란의 시대 | 12.마에트리아 대사와 일체유심조 |
| 5.영혼의 여성적, 남성적 측면 | 13.명상과 DNA |
| 6.성리학과 21세기 | 14.우주의 근원과 블랙홀 |
| 7.유랜시아서와 지구의 운명/233 | 15.낙원의 회복과 감사...../263 |
| 8.고타마 붓다의 메시지 | 16.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중관 |

17. 불교와 뉴에이지
18. 불교철학과 양자물리학
19. 문명적 전환점과 지혜...../278
20. 자아발견과 긍정적 사고
21. 자유의지와 그 열매
22. 부처님의 열반과 쿠시나가르
23. 이성에서 영성으로...../296
24. 감옥인가 학교인가
25. 자아도 욕구도 부정해야 하나
26. 여러 형태의 천국들
27. 인과론과 인과응보론...../316
28. 우주인들도 사랑하고 결혼한다.
29. '중용'과 인습타파
30. 죄의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31. 不二라는 화두로의 회귀
32. 우주시대의 화두...../333
33. 인공지능과 안드로이드
34. 진화선상에서의 두 가지 자연도태
35. 상승이란 무엇인가?...../344
36. 백신과 스타시스
37. 세계적 문제들의 돌파구
38. 진화/순환하는 우주와 절대정신
39. '이상한 나라'의 실제상황...../358
40. 백개의 진열장과 호사다마
41. 다니엘이라는 이름
42. 켈링 경기와 중립국 행정
43. 호모싸피엔스/호모크리스투스
44.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376
45. 복희와 여와, 바람에 관한 이야기
46. 미드웨이어와 몬조론손 치안판사
47. 진화는 민주/자유/개인주의의 대안
48. 몬조론손 판사와 에녹서의 예언
49. 명상/묵상/참선의 실천기법...../393
50. 색즉시공과 멍때리기
51. 의심 불신에서 확신으로
52. 신성과 인간
53. 감각적 삶에 대하여...../407
54. 두개의 태양과 새에루살렘
55. 아카샤 세계와 지혜의 시대
56. 추락과 순교자의 길
57. 구원/상승은 곧 의식적 고양상태
58. 빛의 몸이란 어떤 것인가...../421
59. 시대적 나침판-2
60. 앙크 십자가와 우주의 4대법
61. 대균형의 법과 앙크 십자가
62. 주파수 검색대와 완악한 마음
63. UFO 탐승과 조건없는 사랑
64. 종교와 과학의 만남
65. 종교와 현실인식의 문제
66. 신성 불가지론과 유랜시아서
67. 메타트론 대천사와 무지개 에너지
68. 메타트론 천사의 메시지-2
69. 시대의 나침판을 찾아서
70. 시대의 나침판-5



< 1 > 재림 예수와 붓다

'초인생활'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이미 지구에 재림했음을 설명하는 책이다. 정창영 선생이 옮겼고 정신세계사에서 출판한 '초인생활'을 꼭 사서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권하면서 다이제스트한 내용을 23회에 걸쳐 소개한다. 따라서 모든 인용문들은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합니다.

초인(超人)생활(Life and teaching of the Masters of the Far East) 이란 책은 195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으나 이야기가 발생한 시기는 1894년부터다.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다.

UFO를 만났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예수님이나 혹은 여호와 하느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나 하고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분들은 1세기 전부터 지구인들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1830년대의 죠셉 스미스, 그리고 '보병궁 성서'를 쓴 리바이 도울링, 1894년의 미국 탐사대와 예수, 붓다님과의 만남, 1871년의 증산선생의 탄생, 그리고 1917년의 파티마 사건 등 등. 그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가는 지구 인류의 문명을 지켜보며 길잡이 역할을 개시했던 것이다.

'먼 동방의 지혜와 가르침'이라는 원제를 가진 이 책은 어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공적 기관에서 파견한 탐사대의 탐사기록인 셈이다. 그러나 저자인 베어드 T. 스펀딩이란 사람과 그 일행이 모두 죽은 후에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탐사대가 수집했던 일체의 자료들도 미공개된 채로 기행문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다. 사진자료가 결여된 것이 무척 아쉽긴 하

지만 내용으로 보아서 결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94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증산선생이 공생황을 시작하기 전 세상을 유력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고, 동학이 민중운동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바로 그해였다.

저자 스폴딩을 비롯한 11명의 탐사대는 주로 티벳의 사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고문서나 고비사막에 있었다는 고대 도시의 흔적들을 찾아 출발한 탐사대였던 것 같다. 자세한 탐사목적은 밝히지 않고 지명도 인명도 가명을 쓰고 있지만 그들이 고고학 탐사대였던 것은 분명하다. 영국인 레이어드에 의해서 아씨리아와 바빌론 유적지가 발굴되었고 또 독일인 쉴레만에 의해 트로이 유적지가 발굴된 데에 자극받아 미국에서도 고대문명의 탐구에 착수했을 것이다. 인류는 자신들의 조상인 고대문명에 대해 눈뜨고 알고 싶어 할 때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탐사한 지역은 대략 캐시미르의 고산지대와 티벳의 고색창연한 사원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고비사막 지역이었다. 시발점은 인도였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히말라야의 깊은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대문서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고색창연한 사원들이었다. 그 여정을 따라가 볼 참이지만 우선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대략의 개인적 장비는 챙겨야 할 것 같다. 살아계신 예수와 붓다를 만났다가 물위를 걷고, 공중부양을 하고, 순간이동을 하고, 사막에서 즉석 빵을 만들어 식량으로 삼고 하는 등의 초능력을 발휘하는 대사(Master)들을 만난다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예기다. 그러나 이 책은 결코 흥미본위로 읽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책이 아니다.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떠난다면 금방 부담을 느끼며 도중하차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예수와 붓다다.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예수와 그 주변 대사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줄거리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이 참자아를 찾아가는 종교적 가르침의 문장들로 채워져 있다. 그것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의 낯익은 문장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초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곧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물론 인간 자신 속에

내재하는 신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처님도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런 철학적 차원의 예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바야흐로 그런 경지에서 살아야 할 시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천 년의 세월이 흘러 과학문명이 만발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초월적 경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너무나 감감하다. 과학적 발전과 영적 발전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과 그 주변의 대사들은 아주 과학적으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영적 삶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들이다. 영적 세계의 신비를 설명하는 문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매끄러운 번역을 해주신 정창영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다.

초인적 삶이나 사고방식이 현대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나 과학이 해결해주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조차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적 민족적 이기주의는 언제 세계대전 같은 참혹한 광장으로 인류를 몰아갈 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행성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들이다. 초인적 삶이나 초인적 사고방식은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나 티벳의 밀교 스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책은 지구인들의 철학적 자기성찰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의 생성까지도 다루고 있다. 20세기의 지구인들이 우주의 일원으로써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주생성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예수님과 붓다님은 그 지역의 인류들을 상대로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19세기 말의 예수님과 붓다는 지구인 전체를 상대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예수니까 성경의 우수성을 강

조하고 붓다니까 불경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논조는 물론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성경의 어떤 부분은 히말라야의 고대사원 문서에서 베껴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시대적으로 앞섰던 타종교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기본 요소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인류의 가장 고귀한 이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은 인류가 원래 하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할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기독교와 불교가 만나는 인도를 활동의 중심지로 잡고 예수와 붓다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또 이집트의 피라미트를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오시리스 신도 그 시대의 그리스도였다고 말한다. 어느 종교를 선호하거나 어떤 종교는 폄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한다면 이 책을 통해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와 붓다, 그리고 대사들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 책에서 인류 각자의 초월적 자아, 혹은 참자아에 눈뜨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지시키기 위함인 것 같다. 그들은 교사이자 조연자일 뿐 지구인들의 자유의지를 좌지우지하려는 뜻은 없다고 한다. 뉴에이지 책들을 읽다 보면 아주 편한 생각을 하게 된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우주인이나 혹은 신들이 나타나서 이 얽히고설킨 지구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류 모두가 자신 속에 내재하는 그리스도적 본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와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 커다란 물결을 이룰 때 괴롭고 고통을 주는 온갖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탐사대를 인도한 대사가 자신의 이름을 '에밀'이라고 한 것도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에밀은 19세기의

불란서 사회학자이자 교육 이론가였으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친자연주의를 주장한 루소의 작품 '에밀'과 같은 이름이다. 작품의 주인공 에밀이 다시 나타나 21세기의 지구인들에게 길잡이를 자처한다는 인상을 준다. 루소의 또 다른 저서 '민약론(民約論)'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다.

이 책 '초인생활'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들과 이야기 줄거리도 20세기와 21세기에서 벌어질 중대사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또 하나의 예언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갈 지구인들을 위한 교육서이자 안내서로서 이 책은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 장에서 계속)



< 2 > 행간(行間)의 의미들

'초인생활'은 기독교인들이 읽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책이다. 예수님을 주인 공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일부 내용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자 스폴딩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한 대사들이나 예수님의 견해라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는 20세기에 들어 지구사회를 암암리에 지배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 때문이고 둘째는 모세5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느님의 과격했던 지도방법에 대한 현대인들의 반감 때문 일 것이다.

예수님이 지구에 다시 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이번 목적은 결코 어느 종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면, 그것은 신들로부터 우수한 지능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택되어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결과 20세기에 들어서서 과학계를 주도하고 세계경제와 정치의 중심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유대인 집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들 선택된 백성의 후예들이 제 몫을 다 해야 하는 시대이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증산선생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목사가 믿는 하느님이나 중들이 가르치는 부처가 본래는 하나로되, 중생들을 잘못 인도하면 천지의 원주인(原主人)도 자리를 잡지 못한다.(도전 5편 10장 4절)

위의 말은 천지의 원 주인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 아닌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유대교의 기록들이 무시

되어야 할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쓴 독일의 홀거 케르스텐이 캐시미르가 에텐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근거가 바로 이 책 '초인생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의 행간(行間)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예수님은 탐사대와와 접촉을 끝낼 때 웰튼이라는 한 작가를 만나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전한다. 웰튼이란 사람은 홀거 케르스텐처럼 지성인이요 기독교인이었지만 성경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그 웰튼이라는 작가에게 예수님이 들려준 마지막 연설을 축약하면, 하느님의 신성의 빛은 어떤 물질도 그 물질의 핵까지 파괴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하느님은 지성적 접근만 가지고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예수님의 마지막 연설은 과학과 지성 그 이상을 믿지 못하는 현대의 지식인들을 향해 한 말씀인 것이다. 어떤 물질도 파괴할 수 있다는 그 말은 핵무기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의 말인 것이다.

또한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리쉬라는 대사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이란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 단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넷째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에 한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그 마지막 장에 유대인의 정체를 명확히 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이었을까?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에 신경을 쓰며 이 책이 제작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또한 미국의 탐사대와 접촉한 대사들이 20세기의 시대적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 즉 탐사대와 예수님이 만난 것은 19세기 말이었지만 그분들은 바로 오늘의 세계를 훤히 내다보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유대교의 아버지인 모세에게 다른 옷을 입혀 등장시켰다.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를 쓴 홀거 케르스텐은 그 점을 간과했기 때문의 행간(行間)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세는 처음엔 이름이 없는 대사로 등장한다. 그러나 대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대사로 등장하며 약속의 땅과 광야의 시련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또 이 나이 많은 대사는 주로 탐사대가 고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돕는다. 그러던 그가 죽은 후 다시 부활한다. 그런데 이 대사가 부활했을 때는 **찬더 센**이라는 동양식 이름을 가진 젊은이로 탈바꿈한다. 찬더 센을 한자로 옮기면 **찬도 선(讚道 仙)**이 된다. 도와 선을 찬양한다는 뜻이다. 찰이란 한자를 쓴다면 도와 선을 돕는다는 뜻도 된다. 그리고 찬도 센으로 부활한 그 노 대사의 또 하나의 역할은 고비사막에서 탐사대와 원주민의 언어를 통역하는 일이었다.

대사들은 무슨 목적으로 모세를 부활시켜 동양인의 이름을 주었으며 동양과 서양인 사이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느님과 모세를 통해 특별교육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계속했으며 20세기와 21세기에서도 지구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제사장 국가의 후보로써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찬도 선(讚道 仙)은 바로 증산 사상을 상징하는 이름인 것이다. 증산은 유불선(儒佛仙) 중에서 仙을 으뜸으로 생각한다 했고 그러나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지향한다 했다. 동서양을 아우른다는 뜻인 것이다. 또 대사들과의 만남이 끝날 무렵에 천사들의 합창과 함께 두 하늘의 여인을 대동하고 나타난 한 '어른'이 있었다. 그 어른은 동양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대동하고 나타났으며 그 풍채도 동양적이었다. 그 '어른'은 바로 증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산은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다. 미국의 탐사대가 예수와 붓다를 만나고 있던 그 시기(1894-'98년)에 증산선생도 한반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대사들과의 마지막 만남에도 예수님이 몸소 나타났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말을 한다.

“여러분은 내가 부친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하던 소년 시절에, 신에게서 태어난 인간에게는 짧은 인생으로는 끝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나는 그 엄청난 내적인 깨달음을 얻은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오직 나 자신만 벗어나며 홀로 침묵의 은둔생활을 했습니다....”

위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가? 홀거 케르스텐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소년예수는 인도에 가서 비로소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년 예수는 인도에 가서 '어린 성자 이사'라는 찬사를 들었을만큼 이미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보병궁 성서'에서는 소년예수의 인도기행을 인정하면서도 위의 문구에서는 은둔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의 성장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대사들과 예수님이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을 거점으로 삼은 것은 그 지역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도와 캐시미르 지역은 소년 예수의 사춘기와 청년기가 그 지역에서 있었고 또 부활 후의 삶이 그 지역에서 있었음을 알리기 위함일 것이다. 에덴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벽을 허물고 지구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일찍이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지구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끝내 수행하지 못할 것이기에 유대교의 역사마저 무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웰튼이라는 불신의 작가를 등장시켜서 경고성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대한 불신은 옳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닌가? 단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해석이 구태의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대사들이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 그분들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태어나는 '어린양', 즉 '아기예수의 재탄생'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기예수의 재탄생'은 바로 그분들 활동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탄생은 동양에서의 탄생일 것이기에 활동의 중심지를 히말라야 산맥으로 잡았을 것이다. 이 시대는 동양의 지혜에 눈을 돌려야 하는 시대라는 뜻에서 책 제목도 '동양 지혜자들의 삶과 가르침'(Life & teaching of the Masters of the Far East) 이라고 정했을 것이다.



< 3 > ‘에밀’ 대사와의 처음 만남

이 책의 첫머리에서 저자 스폴딩은 붓다를 '진리에 이르는 길'의 표상으로 삼고 예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곧 깨달음'이라는 확신 하에 글을 쓴다고 했다. 기독교인 모두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앞에 붙인 존칭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써 오신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성(性)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수도 붓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옆드려 숭배하는 자의 자세를 털고 일어나 신의 자녀로서의 자존을 찾아 두발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다룬 책이기 때문에 반듯이 단행본을 사서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한다. 비현실적인 내면세계가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된 내면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영적 세계는 '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진동을 높이면 영적세계의 수준에 도달하고 진동을 낮추면 물질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의 물리학은 물질의 최소단위가 입자가 아닌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파악했다 한다. 파동론을 주장하는 양자물리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탐사대가 대사들과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부터였다.(20세기 초두)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탐사대가 대사들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그후 수십년간 비밀화 되었지만 과학자들은 대사들로부터 얻은 과학지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의 천문학 역시 많은 이론들이 이 책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스펀딩이 전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 프롤로그 >

우리 탐사대 대원 11명은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현실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생애의 대부분을 조사와 연구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입증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완전한 확신과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 때문에 대원 중 3명은 탐사가 끝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대사(大師:Master)들과 다시 합류하기 위해 그곳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남인도에서 2년에 걸친 탐사활동을 끝내가고 있었다.(남인도에 있다는 옛 기독교의 흔적을 찾기 위한 탐사였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날 에밀(가명)이라는 한 장년의 사나이를 만났다. 우연인진 모르지만 그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나에게 인도의 전설이나 신화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도록 권했다. 그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인도인들이 말하는 아데프트(Adept:전수자)인 것 같았다. 하루는 들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상공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나타나자 자신의 누이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낸 비둘기라고 하며 팔을 뻗으니 그 비둘기가 팔에 내려앉았다....¹⁾

스푼딩이 에밀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스펀딩이 대단한 관심을 보이자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에밀이란 사람은 꽃과 나무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먹이를 놓고 싸우던 개들이 싸움을 멈추고 평화롭게 나눠먹게 하고, 스펀딩의 방이 안으로 잠겨있을 때도 벽을 통과해 나타나 깜짝 놀라게 했다 한다.

"이러한 일들은 필멸(mortal)의 자아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참자아가 행하는 것이지요. 현상적인 자아를 완전히 초극하여 참자아로 하여금 말하고 일하게 하며, 참자아인 신의 위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야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세상에 쏟아부어

1)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

지도록 당신 자신을 준비한다면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꾸밈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일을 해 나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사랑의 힘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자연 만물이 자신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친밀해질 때까지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이들 대사들은 사랑의 힘을 방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뱀이나 들짐승들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그들은 상황이 요구하면 물위를 걷기도 하고, 불 속을 통과하기도 하고, 육체의 모습을 숨긴 상태로 먼 거리를 삼시간에 이동하는 등, 온갖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이들의 삶과 가르침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나 그 삶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죽음을 극복한 예수의 기적들이 우리에게겐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그 모든 일들이 전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대사들은 음식이나 의복, 기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편세계(the Universal)에서 직접 끌어다 쓴다. 죽음까지도 극복해서 그들 대사들 중에는 5백살이 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호적을 조사해 본 결과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했다.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대사들은 소수이며 나머지 종교인들은 이들 대사들의 가지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사들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으며 실지로 준비가 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위와 같은 접촉 과정을 통해 미국의 탐사대와 대사들과의 3년 반에 걸친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 4 > 유체이탈과 성령의 씨앗

우리는 3차 탐사를 위해(대사들을 만나기 전 2차탐사를 마쳤음)인도의 한 외진 지역인 포탈에 모였으며 그곳에서 에밀 대사도 만났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탐사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았고 대원 수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는 우리 대원에게 필요한 숙소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포탈에 도착한 것은 1894년 12월 22일이었는데,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고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나는 그날 아침 에밀이 우리에게 해준 말들을 잊을 수 없다.¹⁾

"크리스마스 아침이군요. 여러분은 예수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느님이 보낸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또 여러분은 예수가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재자를 필요로 해야 할만큼 무섭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느님은 하늘에도 어디에도 안계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은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최고의 대사이자 스승이며, 인류를 물질세계의 구속과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해방자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영혼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은 모든 선, 모든 지혜, 모든 진리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신은 우리들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거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

1)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

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결코 떨어져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을 수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과 신은 의롭고, 공정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오신 것입니다.....

젊은 날의 예수가 인도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좋겠습니까?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은 흐르는 물이지 정지한 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위대한 스승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가르침도 신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온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여러분이 예수에게 내려졌던 신의 계시가 모든 인간에게도 주어지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신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각자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한 능력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신비스러울 게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날 탐사대의 베이스기지가 될 아스마라는 마을로 향했다 한다. 그런데 에밀 대사의 권유에 의해 한 대원과 에밀 대사는 포탈에 남고 다른 대원만 아스마로 떠난다. 워낙 길이 험한 외진 지역이어서인지 에밀 대사는 자스트와 네프로(가명)라는 두 힌두인을 붙여주었으며, 그들 역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침착성과 지혜로 일행을 안내했다 한다. 차를 타고 도 닷새나 걸리는 여행을 해서 아스마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 에밀 대사가 벌써 그곳에 와 있었다고 한다. 아스마로 오는 길은 자신들이 온 한 길밖에 없었는데 언제 어느 길로 벌써 와 있었던 말인가? 나중에 도착한 대원의 말을 들으니 에밀 대사는 대원들이 떠난 후 닷새 되는 날까지 자기와 함께 포탈에 있었다고 한다. 닷새째 되는 날 쏘파에 누워 낮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모습이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일행이 아스마에 도착한 후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을 방문하자고 해서 함께 출발했는데, 에밀이 붙여준 자스트라는 사람이 평상시와는 달리 좀 초조한 빛을 보여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으며, 마을 입구에 이르러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한다. 자스트의 진짜 육체는 그 마을 입구에 누워 있었고 지금까지 자신들과 행동한 육체는 또 다른 육체였던 것이다. 두 육체는 만나 하나가 되면서 누워있던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광경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를 상상해 보자. 자스트의 또 다른 육체는 2백 여명이 사는 작은 마을 주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누워 있었고 또 다른 육체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기계적인 침착성과 냉정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라 한다. 그의 진짜 육체는 그곳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길게 자란 수염과 머리털에는 새가 등지를 틀었던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에밀 대사의 설명을 들어 보자. 컵의 물을 열게 한 후 이렇게 설명했다 한다.

"저는 물의 중앙에 있는 원자들이 얼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까지 원자들이 얼어붙는 상념을 품었습니다. 말하자면 상념의 힘으로 중앙에 원자들의 진동을 떨어뜨려 열게 한 후 컵에 담겨 있는 물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컵의 물 뿐 아니라 호수 전체, 아니 지구 전체의 물도 열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거니와 그렇게 했다간 그 냉기에 저 스스로도 얼어죽을 것입니다. 보편세계(the Universal)에서 발산된 상념의 에너지는 그것이 표현된 상태 그대로 나에게 되 돌아옵니다. 내가 선의로 발산한 에너지는 선의 결과를 낳지만 그렇지 못한 에너지는 악의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성령은 아주 작은 씨앗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이 자라 풍성한 보리수가 되듯이 그 작은 씨앗 속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씨앗을 사용할 줄만 안다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들의 육체가 몇 백년을 버텨온 것은 우리 육체의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명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먹은 고목이라도 새순에서는 새로운 생명력이 맥동치고 있습니다. 늙음과 질병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주어진 원래의 생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분리감 때문에 공포와 외로움, 미움과 증오가 발생했고 그런 분리감과 불안, 초조가 육체

에게 늡음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도의 고대 스승인 싯다(Siddha)들은 이러한 생명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후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신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들이 신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서 온갖 불행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 안에 있으면서 신의 능력을 빌려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신으로부터 분리될 때는 물질적 육체를 가진 인간의 차원으로 추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²⁾

2)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



< 5 > 침묵의 사원과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이 다음 방문한 곳은 '침묵의 사원'이라 불리는 한 불가사의한 건물이었다 한다. 이 건물은 절벽 위에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사원인데, 기원전 4천년 경에 생겨난 건물이며 일부분이 파손되면 저절로 복구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한다. 대원들도 그 현장을 목격했다 한다. 사원이 생긴 내력은, 그곳에 있던 작은 마을에 전염병과 야생동물이 기습해서 거의 전 주민이 죽고 몇 사람만 살아남았을 때 성자들이 그곳을 방문했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서원을 했다고 한다. 성자들이 떠난 후에 그곳에 그런 건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주민들이 기도하고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사원을 가리키는지 자세한 예기는 없지만, 우리는 책이나 TV를 통해서 티베트의 어느 사원을 본 적은 있다. 절벽 위에 흰 색으로 빛나는 건물이 그곳 티베트에는 분명 있는 것이다. 에밀 대사는 그곳 침묵의 사원에서 침묵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말한다.

"신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신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면에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들의 내면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내면 깊은 곳에서 아버지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모든 소망을 이루는 힘이 자신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와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말했습니다....신의 현현(顯現) 양식은 의식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인간의 생각에서 신의 생각으로 사고의 주체가 전환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신은 모든 것 속에 편재해 계십니다.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떨어져 나와 홀로 있음을 느낄 때 인간에겐 질병과 죽음이 찾아

웁니다. 침묵의 사원에 들어가 자신을 관찰하면 자신의 적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개아(個我), 즉 떨어져 나온 자신을 부정하고 겨자씨 같이 작지만 그리스도의 자아를 발견해서 그것에 정착해야 합니다...."

<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 >

그들이 침묵의 사원에서 베이스기지인 아스마로 돌아오니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렁거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약 360키로 떨어져 있는 '치유의 사원'에 순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에밀 대사의 권유에 따라 탐사대도 순례자들의 대열에 끼기로 했다. 도중에 사막지대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자스트와 네프로가 도왔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운 여행이 계속되었으나 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폭풍우를 만났다. 뿐만 아니라 강물이 불어나 강물이 본래처럼 줄어들 때까지는 며칠을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식량이 문제였다. 폭풍우를 만나리라는 예상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 근심으로 밤을 새운 다음날, 에밀 대사가 탐사대 앞에서 밀알을 꺼내 땅에 심는다. 밀알들은 금방 파릇파릇한 싹으로 돌아나더니 쑥쑥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밀알들이 영그는 것 아닌가?!! 탐사대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흥분해 있으면서도 그 밀알들을 비비고 가루를 빵아 빵을 만들어 보았다 한다. 빵을 먹으면서 탐사대는 그 밀들이 수개월 걸려 수확된 다른 밀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에밀 대사는 3백 명에 이르는 순례자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의 손에서 하나의 커다랗고 먹음직스런 빵이 만들어진 다음, 대원 중의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 접시에 담자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빵이 만들어져 있어서 순례자 모두가 먹고도 남을만큼의 식량이 마련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에밀 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엘리야가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준 것은 어느 다른 곳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구요? 현상화될 모든 것들은 이미 보편적인(보통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뜻) 실제 세계에서 무형의 질료 상태로 존재합니다....말씀이란 마음의 구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께서 마

음 속으로 어떤 정신적인 형태를 그리자 그 형태 속으로 실체세계의 질료가 흘러들어왔고, 그 결과 신께서 마음 속에 그린 그대로 현실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전능한 창조자라도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질서있게 정리해서 '그것이 있으라.'고 명확히 말해야만 합니다....처음에는 필요를 느끼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서 의식 속에서 그것을 확고히 한 다음,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며, '신이여,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던 예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¹⁾

< 물 위를 걷다 >

온 길을 되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중간 정도의 길을 왔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강물이 줄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식량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다음날 자고 나니 처음 보는 낯선 사람 다섯을 탐사대에게 소개한다. 그들은 치유의 사원을 이미 방문하고 돌아가는 중인데 조금 아까 강을 건너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에밀 대사가 그들 다섯과 탐사대원 일부를 데리고 강을 건너겠다고 한다. 물 위를 걸어서 건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탐사대원도 주저했으나 에밀과 자스트, 그리고 네프로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온 다섯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넌다는 설득에 용기를 얻어 열두 사람이 함께 강을 건너기로 한다.

폭풍우로 불어난 강물은 거센 물살과 거품을 뿜으며 흘러가는데, 서로 손을 잡은 열두 사람은 함께 강물 위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다!!.....저자 스폴딩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가듯 물을 밟고 강을 건넌 것이다. 자스트와 네프로는 다시 강을 건너와 남아있던 대원과 3백명의 순례자들을 데리고 강을 거슬러 강폭이 좁은 계곡까지 올라가자고 한다.

모든 순례자들이 치유의 사원에 도착할 때까지 64일이 걸렸는데, 에밀 대사가 생산한 빵은 넉넉한 식량으로 공급되었다 한다.

1) 이 책의 22장까지 모두 정신세계사 간 '초인생활'에서 인용되었음.



< 6 > 아메리카의 뜻있는 출발

강물 위를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며, 그들이 도착한 치유의 사원에서는 예로부터 부정적인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전통을 이어왔다고 한다. 생명, 사랑, 조화, 평화 그리고 완전과 관련된 말들만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이어온 풍습이 있다고 한다. 그래 그런지 탐사대원 중 한 사람이 일부러 부정적인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아서 잘 안됐다고 한다. 그들의 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골연화증 때문에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일어서 자기 발로 걸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대사들을 따라다니며 4개월 동안 봉사했다 한다.

치유의 사원에서 돌아온 그들은 마침내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여행길에 올랐다고 한다. 말을 타고 험준한 산길을 타고 오르는 여행이 며칠 동안 계속된 후 7월 4일에 한 산맥을 넘게 되었는데, 에밀 대사는 오늘이 당신들의 국경일이니 하루 쉬자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한다.

"우리 대사들 중에는 아메리카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사람도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시키고자 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겨자씨 같은 역할을 해서 아메리카의 역사는 시작되었지요. 꿈은 현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여러 가지 비전들도 같은 방법으로 마음 속에서 영상화 되어야 합니다. 최초로 아메리카에 도착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 가슴 속의 꿈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이나 계속적인 예측이냐를 놓고 갈등하고 있을 때 당신들의 조상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그들 조상들의 꿈을 계속 밀고나가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새겨진 말들은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을 선포하는 자유의 종이 울릴 때 우리는 그 첫 번째 종소리를 생생히 들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신의 영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라는 뜻을 가진 'e pluribus unum'이라는 아메리카의 표어가 있지요? 또 'In God we trust'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신에 대한 활기찬 신앙을 가졌던 당신들 조상의 말이 아닙니까? 아메리카는 또 고상한 소망과 이상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국가의 상징으로 채택했습니다. 아메리카의 선조들은 이상을 향해 날고픈 내면적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이상적 세계를 향해 독수리처럼 날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영감으로 인도된 아메리카의 어깨 위에는 세계를 인도해 나갈 사명이 지워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중대한 잘못이 생긴 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품었던 꿈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점점 잊혀져왔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여러분의 나라를 이끌어왔지만 그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도 험난하고 어려운 많은 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만일에 좁아터진 인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그리스도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역사를 이어왔다면 훨씬 훌륭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라는 표어의 깊은 영적인 뜻을 이해한다면, 그 순간 보다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맑은 빛으로 충만한 수정시대(水晶時代)의 여명이 밝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조국 아메리카가 자신의 실상과 사명을 깨닫고 신의 영광 결합하여 신이 바라시는 대로 역사를 전개시켜 나간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발전과정에서는 강인한 독수리의 발톱과 부리로 나라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진정한 영적인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가 독수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독수리가 지키는 것을 비둘기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 불 속을 걷다 >

그들의 여행은 계속되었고, 한 마을에 이르니 설산 속에 사는 설인들이 마을사람 넷을 잡아갔다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설인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에밀 대사를 따라 설산 속으로 들어갔다. 길도 없는 험준한 산 속을 헤매게 되었으나 에밀 대사의 안내로 며칠 만에 설인들의 소굴을 발견했다 한다. 그들은 사는 지역도 일정치 않고 동굴과 동굴을 찾아 떠돌는데, 그러다가 작은 마을에 침입해서 마을사람을 잡아가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한다. 에밀 대사의 신통력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찾지 못했을 것이다. 온 몸이 털로 뒤덮인 그들은 에밀 대사 앞에서 움짱달짝을 못했으며 순순히 마을사람들을 내주었다 한다. 그들은 무슨 특별한 종족이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간세계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은 한 집단이 격리되어 살면서 동물화한 인간이라 한다. 여타 동물들은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랑을 감지해서 꼬리를 흔들거나 가까이 오는데 설인들은 그런 감지기능마저 상실한 지 오래여서 사랑의 파동을 보내도 응답할 줄 모른다고 한다. 인간이 퇴화하면 동물보다 못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을 것이다.

여행을 계속하다가 사막지대 가까운 곳에 있는 초원을 만났는데, 마침 들불이 번져 무섭게 타고 있었다 한다. 초원의 중간에서 만난 들불이기 때문에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에밀 대사의 말이 자기들을 신뢰한다면 무사히 불길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일행은 그 말에 의지해서 무사히 불길을 통과했는데, 서로 손을 잡고 불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의 그 처음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갑자기 열기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느낌과 함께 그들의 발은 땅을 밟지 않고 약간 공중에 부양된 상태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 세례요한의 행적지 >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세례 요한이 한 때 살았었다는 지방이었다 한다. 아마 캐시미르의 어느 산악지대가 아니었을까 한다. 에밀 대사의 안내로 그들이 들른 마을은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세례요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으며 요한의 행적에 관한 아주 오래된 기록들도 확인했다 한다. 세례요한은 그 마을에만 산 것이 아니라 티벳, 인

도, 중국, 페르샤 등 지혜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찾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다 한다.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여행행로와 요한의 여행행로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한다.

세례요한과 신약성서의 출발지가 히말라야였다는 대사들의 왜곡이 이 시대의 반여호와 현상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세례요한의 다음 행적지를 따라가 보면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세례요한이 살았던 마을에서는 대대로 많은 대사들이 탄생되었으며 그 중에는 지금도 에밀 대사와 함께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은 바로 요한에 관한 기록을 직접 써서 남긴 사람의 후손인데 몇 백살의 나이를 먹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40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도 일행의 여행에 동참해서 다시 길을 떠난다.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고대의 사원을 향해 길을 떠났다. 세례 요한이 명상과 수행을 했던 사원이라 한다. 말을 타고 가다가 말도 갈 수 없는 가파른 계곡에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의 절벽 위에 세워진 사원이었다. 위에서 흔들리는 바구니를 내려주어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곳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마치 구름 위의 산에 오른 기분이었다 한다.

그 사원은 세례 요한이 그곳에 오기 전부터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1만년 정도는 된 역사를 가진 건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풍화작용도 받지 않고 지진에도 파괴되지 않는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어서 수천년 동안 많은 수행자들의 수행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원 안에서는 4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문서들도 발견되었다 한다. 에밀 대사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후기활동, 즉 공생활 3년 끝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팔레스탄인에서 있었지만 초기활동에 대한 기록은 그 사원의 기록을 베껴간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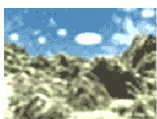
그렇다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그곳 히말라야의 산악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예기가 아닌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예기지만, 예수님의 사춘기 이후의 성장기가 그곳에서 가까운 인도에서 있었다는 예기가 아직 회자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상징성을 부여하며 히말라야를 활동의 중심

지로 선택한 것 같다.

그들은 해발 3천메타 산중에서도 절벽 끝에 서있는 역사가 오랜 사원에 묵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원의 옥상에 올라가 달빛에 비치는 밤의 광경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웬 40대의 아름다운 여성이 그곳에 서 있었으며 그녀는 에밀 대사의 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마치 유명처럼 나타난 보다 젊은 남녀는 그녀의 아들과 딸인데 보기에는 2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 백살을 넘긴 나이라고 하여 또 한번 놀란다. 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에밀 대사의 매부는 바로 세례요한의 직계 후손이라고 한다.

미국 탐사대를 3년 반 동안 안내하고 인도한 대사의 이름을 왜 **에밀**이라고 정했을까? 에밀은 루소의 계몽사상 중에서도 교육을 주제로 다룬 저작물의 명칭이다. 에밀 대사와 세례요한을 친척간으로, 밀접히 관련시킨 의도가 무엇일까? 세례요한은 예수에 앞서 길을 닦은 예비자 였듯이 이 시대의 에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암시일 것이다.

에밀 대사를 필두로 한 히말라야의 대사들이 고대한다고 한 '아기예수의 재탄생'도 그 예비자로서의 교육자, 즉 에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 7 > 에밀의 마을에서 보낸 유월절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에밀 대사의 고향마을이라고 했다. 계곡을 따라가다가 앞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났는데, 그 산 위에는 분지가 있고 그 분지로 올라가는 길은 폭포 밑에 뚫려있는 구멍이었다 한다. 구멍에 들어서면 45도의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니 계단의 끝에 산 꼭대기의 분지로 통하는 구멍이 나타나고, 분지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을의 집들은 분지의 가장자리에 돌로 방어벽을 쌓듯이 지어졌고 분지의 바깥 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 침입자가 있는지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유랑하는 마적단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이라 한다.

탐사대는 얼마 전부터 4팀으로 나뉘어서 각 팀마다 대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모두 이 마을에서 만나는 날이다. 이 마을에서 무슨 특별한 집회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로 떨어져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각 탐사대가 아무 사고 없이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인도하는 대사들의 신통력 때문이었다 한다. 상대팀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그것을 노트에 쓰고, 대사는 그것을 읽은 후 상념의 힘으로 멀리 전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전언을 쓴 쪽지를 들고 사라진 후 저쪽의 회신을 그 쪽지에 받아오기도 했었다.

각 탐사팀들이 인도하던 대사들과 함께 모두 그 마을에 속속 모여들었다. 만찬장이 준비되었고 식탁에는 도자기 그릇과 은접시도 준비되었다.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잡담을 하고 있을 때, 방의 한 벽면에 안개가 낀 듯 하더니 그 안개 속에서 사람들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남자 아홉 여자가 셋 도합 열두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이어서 다시

12명의 남자들이 나타나고 다음은 13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십대 정도로밖에 안되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끼어 있다. 모두가 현재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사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십대밖에 안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중심인물인 것 같다.

그녀가 나타날 때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보이지 않는 합창단들의 합창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더니, 합창단도 형상화되어 나타나 만찬장에 합류하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는 전기도 없는데 만찬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과 안온한 기운이 가득차고 그 빛에는 그림자도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상석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의 자리에 앉은 십대의 젊은 여인은 탐사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탐사대장이 사랑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간다.

"사랑은 모든 병적인 현상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인간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신을 명확히 깨닫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는, 고향을 그리며 마음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소원은 신을 아는 것이며, 올바르게 아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대사 예수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썼습니다....이 세계는 광물차원, 식물차원, 동물차원, 그리고 인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물차원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도 생명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현상 속에 있지 않고 실체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물세계도 신의 법칙 아래 움직이고 있으며, 식물세계, 동물세계도 모두 신의 법칙이 한 차원씩 높여서 나타난 세계이지요. 가장 높은 차원에 도달한 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의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녀가 연설을 마친 후 한 손에 접시를 들고 팔을 높이 들자 그 접시에 온갖 음식이 나타난다!! 이들의 음식은 항상 식물성이다. 육류는 먹지 않는다고 한다. 만찬동안 내내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왔고 만찬 후 식탁을 치우고 서로 어울려 춤도 추었다. 그렇게 유쾌하게 만찬이 끝난 후, 안개처럼 나타났던 그들은 또 안개처럼 사라졌다!!!

< 유월절을 보내며 >

그들은 겨울을 나기 위한 또 다른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그 마을은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계곡을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가니 고개마루가 나왔으며 그곳에 작은 분지의 산 정상이 형성되어 있었다. 분지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있었고 과거에는 그 계곡으로 주변의 마적단이 침입하곤 했기 때문에 돌을 굴려서 계곡을 봉쇄하는 방어장치가 되어 있었고, 망을 보기 위한 집도 몇 채 지어져 있었다. 그 집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는데, 또 한 대사가 나타나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겠다고 한다. 그는 대사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아보이는 사람인데 깊은 산골에 살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훤히 아는 것 같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그가 하는 말은 그 당시, 즉 19세기 말이 아니라 마치 현재의 우리를 향해 하는 말 같다.

"변화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은 거의 한계에 도달했고, 인류는 이제 만물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때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서로 다르다는 생각은 인간의 육체적인 마음 속에만 존재할 뿐, 다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종족과 종족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미움을 증폭시키고 전쟁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서로 다르다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어느 한 교파나 교리가 다른 교파나 교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다른 진리란 없습니다. 다른 천국도 있을 수 없구요. 머지 않아 모든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고 가까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위로 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흙탕 속을 기어다니는 것에 지친 인간은 하늘을 날수 있기를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 동경이 현재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도록 합니다....창조의 능력은 마음 속으로 그린 이상이라는 거꾸집 속에 질료를 채우고, 그러면 바라는 바가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그러나 '광야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모세를 상징하는 노인 대사는 먼저 특정 종교만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집트의 노예상태에서 출애급했듯이 이상을 향해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며,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탐사대는 자신들이 초대받았고 또 겨울을 지내기로 한 마을을 향해 다시 출발했다. 먼첫번 마을은 에밀 대사와 그 가족의 고향마을이지만 대원들이 겨울을 지낼 마을은 다른 많은 대사들이 본거지로 삼고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는 양쪽에 높은 절벽이 가파르게 서있고 입구에 이르기 전 계곡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 마을들을 지나 마치 대문 기둥처럼 양 쪽에 버티고 선 절벽을 통과하니 머지않은 곳에 또 다른 마을이 보인다. 대사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슨 특별한 마을이 아니고 그곳 원주민들 속에 섞여 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주민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의 여정을 요약하면, 제일 먼저는 세례요한이 수도하던 높은 산정의 수도원이었고, 다음은 폭포를 통해 들어가는 에밀대사의 고향마을이었고, 다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이름없는 대사를 만나 약속의 땅과 광야의 시련에 대한 강론을 들었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여러 대사들의 공동 집회소가 있는 가장 큰 마을이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라 했다.

마을에는 11명의 미국 탐사대원이 겨울을 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집은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젊은 여인의 집이었다. 탐사여행이 시작될 최초에 한 국경지역에서 만난 여인이었는데, 그녀 역시 십대 정도밖에 안되어 보였지만 그녀의 나이가 4백세를 넘었다는 말에 놀란 적이 있었다. 그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사들이 30세 전후로 보였고 50세 정도가 가장 많아 보이는 나이였다. 그녀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 무척 반가웠는데 그녀가 자신의 집을 대원들의 숙소로 제공한 것이다. 어느덧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번 연말에는 마을 주민은 빼고 구도자들만, 그러니까 대사들만 참석하는 모임이라 한다. 그들은 그 모임을 '유

월절'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다음날 만찬장에 가니 2백명 가량 되는 많은 대사들이 벌써 와 있었고 대원들이 묵는 집 주인인 젊은 여인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색 가운을 입고 만찬의 사회를 보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축제를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먹고 마시는 축제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의식 차원으로 상승한 것을 상징하는 축제이지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완성된 육체를 가지고 천계에 들어가서 최고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천계는 제7층의 하늘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지요. 그분들의 육체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차원을 낮춰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친 후 잠시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방안의 조명이 잠깐 사라졌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다섯 명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있었다. 남자 셋과 여자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에 만났던 에밀 대사의 어머니였다. 그들은 모두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그 몸에서부터 발산되는 광채 때문인 것 같았다. 그들이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조용히 자리에 앉자 만찬이 시작되었고 만찬이 끝난 후, 천상에서 온 다섯 사람은 청중을 향해 각기 연설을 했고 그 마지막으로 에밀 어머니의 차례였다.

"지금 이 방의 안온한 빛과 따뜻한 열기는 어떤 발광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대사들의 상념의 힘에 의해 실체의 세계로부터 끌어온 것이지요. 우리는 상념의 세계로부터 무한한 에너지와 힘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이나 동력기 같은 소음과 공해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기계가 없이도 우주에 편재해 있는 에너지를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지요. 이것이 상념이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힘입니다.

상념의 또 다른 힘은 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말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나쁜 뜻으로 만들어진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도 그 표현 방식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그것이 인과응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느님이 내

리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언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수없이 많이 파생되어 나온 종교 조직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종교인은 없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 속에서 그리스도 의식이 탄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기 예수의 재탄생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조국 아메리카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류 모두가 내면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재탄생하는 그 휘황찬란한 광휘의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송년을 노래하는 합창소리가 울려 퍼진다. 종소리와 함께. 그렇게 해서 그들은 3차 탐사여행의 첫 해를 마감했다.



< 8 > 재림 예수와의 만남

'유월절' 축제이자 송년파티였던 모임이 꿈처럼 지나가고 다음날 새해의 첫날을 맞았다. 에밀 대사의 고향마을을 떠나 오던 중 높은 분지의 망루 같은 마을에서 만났던 노인(모세를 상징함)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함께 근처의 오래된 사원으로 가자고 한다. 그 사원은 마을로 들어올 때 보았던 대문 같은 절벽의 바위를 뚫고 구멍을 파듯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땅에서 사원의 입구가 있는 곳까지의 높이는 무려 2백메타 정도였는데, 입구까지 2백여 메타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층층이 7층의 방들이 위를 향해 일렬로 만들어졌고 그 꼭대기에는 마치 사원의 지붕처럼 튀어나온 반석이 길게 돌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7층 종대로 올라간 방들과 그 위의 돌출된 바위를 합해서 보면 T자 형태의 사원이 지어진 것이다. T자는 Time을 의미하고 7층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7엘로힘, 혹은 7층의 하늘나라를 의미할 것이다. 사원의 입구까지를 2백여 메타의 사다리로 올라가도록 만든 것도 많은 함축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11명의 미국 탐사대는 이 시대의 11사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유다를 뺀) 단 기독교만의 사도가 아니라 '세계사원'의 사도들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3차원 지구를 4-5차원 지구로 안내할 '빛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반듯이 한 뜻으로 화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대사의 안내를 받으며 사다리를 타고 사원의 첫째 층에 들어서니 사방은 암벽이 벽을 이루고 있고, 남쪽을 향하고 있는 바깥 쪽으로 창이 하나씩 나 있는데 그 창에는 필요시에는 석판으로 창문을 가려 사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산 속에

서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소수종족이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방 안에는 나무로 만든 최소한의 가구도 있고 각 층은 층과 층 사이에 있는 돌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맨 위층의 창문에는 사원의 지붕처럼 보이지만 발코니 역할을 하는 석판이 돌출되어 있다.

이 사원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히말라야 산맥이 지진과 함께 융기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융기현상을 일으키기 전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그 동굴사원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라 한다. 석판에 새겨진 그 기록들이 한 커다란 방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란다. 노인 대사가 설명해주는 석판의 기록에 의하면, 에집트의 신화적 인물 오시리스는 '인류의 모국'에서 온 최초 인류의 후손이었다고 한다. 오시리스 인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등한 문명인이었지만 점점 퇴화되고 흑인족과 혼혈되면서 현재의 에집트인이 되었고, 혼혈되지 않은 족속이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스라엘도 그 백인 종족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 지구에 왔던 오시리스의 조상들은 '성(聖) 형제단'이라고 불렀던 고등인종이었다 한다. 그들은 또한 현재의 미얀마 지역에서 살던 '나가(naga:龍)' 족을 계도했는데, 나가족이 남긴 천문학 서적 '수리야 싯단타'는 저작 연대가 약 2만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나가족이란 용(龍)족을 의미하는데, 지구에서의 용족의 역사가 그처럼 오래 되었다는 말 같다. 또한 브라만의 베다 경전도 나가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불교의 기초경전인 아함경에는 석가를 인룡(人龍)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성경 역시 오시리스의 후손들이 만들었을 석판의 기록에서 인용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성경 창세기의 내용들과 다르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브의 창조는 히브리 민족을 위한 예기이고, 히말라야 대사들의 말은 지구인 모두를 위한 인류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사들은 20세기의 과학적 상식 안에서 살아갈 20세기 인류를 위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석판의 기록을 이용해 지구의 대강의 역사를 말해 준 노인 대사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기독교가 여러분 미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도 지구에는 과거 역사상 많은 대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스승들을 종교적 교주로 신비화시킨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을 종교적 신비라는 베일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분들이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노력과 자기개발의 결과였습니다. 그분들이 만났던 내면의 그리스도는 여러분도 만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달라는 유혹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원리는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 혹은 내면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의 삶은 십자가에 못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의 삶이 그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고, 두 사람 이상이 합해서 기도하면 반듯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고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노인의 말이 끝날 때쯤 방안이 환해지며 어디선가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대원 중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자 그 음성은 점점 뚜렷해지며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한 것은 나 혼자만이 그렇다는 예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의 독생자라고 말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신의 분신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신의 자녀인 세상사람 누구나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뚜렷해진 음성과 함께 나타난 젊은이는 예수님이 분명해 보인다!! 대원들 모두가 함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뒤이어 나타난 두 사람이 있다. 그 중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으로 보아 사도요

한을 가리키고 또 한 사람은 빌라도라고 한다!!

"이 친구 빌라도는 처음에는 어느 길이 진리인지 몰라 방황했지만 나중에는 참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벌써 오래 전에 그를 용서했는데 세상은 왜 아직도 그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때 어디선가 찬양의 합창소리가 천상의 음악처럼 들려오고 방안은 그들이 나타났을 때부터 밝고 안온한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빛은 그들의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것 같다. 그들의 몸체는 반투명처럼 보이며 백색의 반짝이는 눈꽃들의 집합체인 것 같다. 그들은 왔던 방식 그대로 다시 사라졌다!! 예수, 요한, 빌라도는 그렇게 반짝이는 눈의 결정체 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다.

< 주 하느님(Lord God) >

이튿날 사원으로 안내할 사람은 숙소의 여주인과 또 다른 두 여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남자가 나타나 동행한다고 한다. 한 사람은 세례요한에 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의 후손인데 전에 만났던 그의 5대 선조, 즉 기록을 직접 써서 남긴 사람보다 오히려 늙어보이는 것이 신기하다. 그가 한 가정에 병든 아이가 있다고 하여 가보니 병든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다. 대원들의 여주인이 아픈 아기를 넘겨받아 품에 안으니 기진맥진해 있던 아기가 금방 활기를 찾아 여인을 보고 웃기까지 한다. 아이를 다시 엄마품에 돌려준 여인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 저들이 평소에도 우리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플 때마다 나에게 쫓아오지 않아도 될텐데 말입니다. 평소에는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다급한 문제가 생겨야 우리를 찾아오니 답답한 일이지요..."

그렇게 아이의 병을 고쳐준 후, 일정대로 사원에 도착해 까마득한 사다리를 타고 사원의 첫째 층에 들어가니 언제나처럼 실내는 밝은 빛으로 가득 찬다. 대사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 빛이 따라다닌다. 언제 나타났는지 어제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 석판 하나를 꺼내 젊은 여인 옆에 세워놓는다. 여인은 석판에 대한 설명은 잠시 미루고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를 설명한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온 세상이 자

신을 반대하는 것 같아도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벽에 어떤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방에는 어떤 영사기도 없는데 말이다. 현재의 고비사막 지역에 있었던 고대국가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들은 바로 위그루 족의 조상들이며 저 장면은 수십만년 전의 영상이라고 한다. 사막이 아니라 초목이 우거지고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땅인 것 같다. 사람들도 윤기가 흐르는 백색 피부에 늙은 모습들이다. 그때 형성된 문명도시의 흔적이 지금도 지하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도상에서 그 지역을 알려준다. 현재의 위그루 족이 저들의 후손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나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그 속에는 바로 자신들이 들어있다!! 몇 년 전에 탐사대가 남아메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가?!!

숙소 여주인이 설명한다.

"모든 상념과 상념에 의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파동들은 하늘 어딘가에 그 기록을 남기지요.(아카샤 기록층) 앞으로 여러분도 이 영상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TV) 그러나 여러분이 만들어낼 영상기술은 물질차원의 기술이지만 저 장면들은 영적차원의 기술입니다. 물질적 기술이 발달하면 영적차원으로 한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머지 않아 당신들의 조국 미국은 그런 단계에까지 자신들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위대한 발전이라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아메리카는 영적 단계의 직전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세계와 물질세계는 아주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차원에 머물지 말고 영적 단계까지 자신들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영적세계란 하나도 신비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이룬 것만 바라보며 자만심에 빠질 때는 아닙니다. 또 그것을 뒤돌아볼 때도 아닙니다. 과거의 성취는 잠재의식 속에 간직하고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메리카는 원래 오시리스의 종족이 살던 땅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는 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과거는 하나의 발판일 뿐 현재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요. 올라가야 할 계단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아까 노인 대사가 꺼내 준 석판으로 몸을 돌리며 그 내력을 설명한다. 그 석판은 고비사막의 고대문명에 근거한 유물인데, 기록된 내용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 하느님(Lord God)'에 관한 해석이라 한다. 히브리인들의 신화에서는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일곱의 엘로힘을 창조했다고 한다. 그 '엘로힘'이 '하느님'으로 번역된 것이다. 그리고 엘로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한 주 하느님인 것이다. 신(神)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원리' 그 자체인데, 처음 물질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원리를 닮은 '창조자'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창조자'에게는 '창조원리'로서의 신의 성격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자는 무엇이나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대에 고비사막 지역에 있었다는 무(Moo)국은 '창조원리'를 뜻하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이며 '인류의 모국'에서 지구에 온 최초의 지구인류, 즉 오시리스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설명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 하느님(Lord God)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력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이 된다. 비인격적인 존재, 즉 창조원리 그 자체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후반부에 갈수록 인간과 하느님(신)은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창조력은 창조원리로서의 신으로부터 빌려다 쓰는 것이다. 그런 능력으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이들이 바로 7엘로힘이라 불린 '주 하느님'이라는 말이다.



< 9 > 죽은 사람을 살리다.

노인 대사는 탐사대원들에게 고대의 석판들 중에서도 문자와 형상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골라 해석해 주고 있었다. 브라만교와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신들이 문자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한다. 그러한 내용의 고문서였을 것이다.

그런 고문서들을 번역하고, 탐구에 몰두하는 동안 3개월의 세월이 흘러갔다. 어느날 평소처럼 사원에 들어가니 노인 대사가 긴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것 같다. 깨우기 위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그때 언제 나타났는지 에밀 대사가 그들 뒤에 서있다. 이 노인 대사는 아직 육체적 죽음을 극복할 단계는 못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다. 에밀 대사를 따라온 다른 4명의 대사들과 탐사대원은 서로의 허리에 팔을 감고 죽은 자 앞에 서 있다. 그런데 방안이 더욱 환해지며 어느새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앞에 선다!! 빌라도도 함께 동행했다. 예수는 대원들에게 죽음의 세계 저 너머로 함께 가보자고 한다. 죽음의 세계에도 생명이 있으며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죽은 자 앞에서 손을 들어올린 후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는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신과 함께 있습니다. 신의 순결한 조화와 사랑과 평화가 만물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대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신의 이 완전함이 그대에게 생생하게 나타날 것을 압니다. 그대는 살아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그대를 받으실 것이요....그리스도,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라!! 하며 일어날 것이요!!"

그러자 시체가 일어난다!!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고 순수한 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바위벽조차 투명해지며 마치 벽을 통해서 무한공간을 바라보는 것 같다. 그들의 감동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노인의 티를 완전히 벗고 소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저의 동역자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였을 때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체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도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의 기쁨은 한없이 크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팔을 뻗어 새생명으로의 변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께서는 소속된 종교나 신앙에 상관없이 자기를 향해 손을 내미는 자는 모두 받아들입니다."

모세를 상징하는 노인 대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도록 상황을 설정한 것은 구약성경의 기록들이 무시되지만 다시 그 진가가 복원될 것임을 의미할 것이다. 혹은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캐릭터도 죽었다 부활할 것임을 상징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한 후 부활한 노인 대사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예수님의 모습도 사라진 후 대원들은 각기 자기들의 감동 속에서 침묵을 되새기고 있다. 그때 저 아래 마을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니 웬 낯선 사람들이 몇 명 와 있다. 대원들이 모두 내려가 보니 보다 아랫쪽에 있는 마을에서 거의 죽은 사람을 떠메고 온 것을 발견한다. 예수님은 그도 살려낸다!! 그러자 떠메고 왔던 사나이들은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오히려 멀리 도망치고 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예수님이 설명한다.

"우리는 우주적인 지성과 하나이며 우리 자신이 그 지성활동의 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인 지성이 다름아닌 위대한 원리인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의식활동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우주적인 지성의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적인 지성, 그것이 곧 하느님이고 신이며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통해

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우주적 지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저것을 배우지 않고도, 또 연구나 추리를 통하여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이 정도까지 성숙하게 되면 실로 배우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주 속에는 완전한 사고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 흐름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체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도 다 알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우주적 지성이란 곧 신의 지혜인데, 그것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잠자고 있는 12가닥 DNA가 깨어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12가닥 DNA는 그리스도성(신성)에 까지 자신을 진화시킨 우주 조상님들의 DNA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은 계속된다.

"모든 진실된 말과 생각은 유일한 우주적 진리의 일부분이며, 이 땅에서나 천상에서나 순수한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원자, 전자, 미세한 소립자, 행성과 항성 또는 어떠한 개체라도 그 모든 존재의 형태와 상태는 모두 신의 표현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사랑의 힘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개체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우주적인 전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간 개체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대 원리인 하느님(신) 안에 녹아 있으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신)은 우리 내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 안에 존재하고 신은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신의 권능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것은 바로 '지금-여기에서' 그런 부활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죽음 후의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부활입니다.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라는 말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 10 > 인간의 가능성과 책임

대원들은 계속해서 고대 석판들의 내용을 해석하기에 바빴고 예수님은 그들 주변에서 항상 맴돌다가 그들이 필요를 느낄 때는 나타나곤 했다. 하루는 대원 한 사람이 휴식시간에 나타난 예수님께 지옥과 마왕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이렇게 설명한다.

"지옥이나 마왕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다는 말을 풀어봅시다. 아직 지구의 과학은 태양이 모든 열과 빛을 제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빛과 열은 지구 자체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가 자체의 빛과 열을 끄집어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지구는 공기층에 의해 반사되는 자신의 빛과 열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각 밑에는 뜨거운 용암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뜨거운 용암 속에서 마왕이 살고 있고 그곳이 지옥일까요? 용암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마왕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건 생명체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마왕이나 지옥이 있을만 한 곳은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내쫓은 귀신들도 그 사람들 자신이 만든 허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있는 곳에 지옥과 마왕이 있고 인간이 그들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원 중 한 사람이 하느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달라고 한다. "하느님은 존재하는 만물의 배후에 있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전지전능하며 우주 속에 편재한 거룩한 영입니다. 하느님은 비인격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무한히 베풀어주시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하느님만큼 풍성히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이라는 우주공간 어디에 존재하는 초인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또한 보좌에 앉아 죽은자를 심판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죽는 일이 없으며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배후로서 존재하는 하느님, 즉 무인격의 신을 뜻하고 있다. 이것이 우주인들이 신이라고 정의한 '우주의식'이고 우주적 생명력인 것이다. 그러나 미개한 인간들을 교육시킬 때는 인격적인 하느님을 내세웠던 것이다.

"과거에는 그런 엄격한 신상(神像)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악한 생각과 불신과 미혹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과 불신과 미혹을 몰아내기 위해 종교적 교육이 필요하고 그 목적을 위해 엄격한 인격적 하느님도 필요했다는 말이다.

"몰아내야 할 그것들은 악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악한 것 외에는 악마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단계에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리적 힘의 개발도 유용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최종적인 주도권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느님(신)께 넘겨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주의 주도권은 하느님의 지성, 그 손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때 바라본 것은 물리적 원칙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성적 원리였습니다."

또 다른 대원이 이렇게 질문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인간은 신에게서 나왔고 기필코 신에게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내가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므로써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맨 처음의 인간은 그리스도와 하나였으며 모든 인간도 맨 처음 인간의 모든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중에 기억 속에서 그 사실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인간은 다시 원래의 자기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

게 깨달아진 것이 그리스도 의식인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사건 이후 50년 이상을 제자들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밖에 있는 내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 캐시미르에서 살았으며 80이 넘는 나이에 그곳에서 자연사했다는 플라야데스 우주인의 말과 같은 내용이다.

"십자가는 원래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이 밟고 있는 땅에서 하늘을 향해 안테나처럼 세워져서 이 지상에 천국이 밝아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성(性)은 과학자들이 언뜻 상상은 했지만 그 내막은 아직 모르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면 생명은 아낄 것이 아니라 살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에너지는 에너지의 반사작용에 의해 반듯이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으면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재탄생된 순금으로써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혼을 지닌 자도 세파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동정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고, 무거운 짐 지고 힘겨워하는 자를 쉬게 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무지로 인해 소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눈을 감았든지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즉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열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주입시키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인간의 가능성과 그 책임 >

다음은 에밀 대사와의 대화다. 어떻게 하면 치료의 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치료의 능력은 사물을 그 근원에서부터 파악하는 법을 익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조화는 그것들이 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성(神性)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듯이 인간의 운명을 주무르지는 않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사진기의 감광판처럼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와 기억된 모든 자료를 반사시킬 수 있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두뇌세포는 타인의 두뇌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파동으로 작용하며 만나는 곳마다 힘을 발휘합니다. 어지러운 사회현상, 불화, 전쟁, 심지어는 자연재해까지 이 인간 두뇌의 파동들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에게 창조력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사랑이 있고 평화를 말하며 화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당위성이 이런 데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인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모두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평화도 전쟁도 인간이 만들어낸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불길하거나 나쁜 생각이 머리 속에 떠오를 때는 얼른 그것들을 지워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길한 징조를 예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위와 같이 반사기능을 가진 두뇌세포들의 작용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신적(神的)인 마음의 생각과 활동을 감지하여 기록하는 민감한 세포군도 있습니다. 신적인 마음은 진실의 진동이 창조하여 방출합니다. 이 신적인 마음 또는 신은 만물 속에 두루 퍼져있으며, 항상 진실된 진동을 흘려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지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재생시키는 뇌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면 우리는 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없었던 신적인 진동을 받아들여 다시 방출할 때 치료의 기술은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마음의 생각과 활동을 기록하는 민감한 세포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 DNA 세포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테르적 세포이고 다른 말로는 영적세포이기도 할 것이다.

에밀 대사가 말을 멈춘 사이 또 벽에 어떤 영상이 나타난다. 그들의 눈에도 익숙한 어떤 도시들이다.

"이것들은 오늘날 세계의 상황을 묘사해 주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가마에 기름이 끓듯이 인간의 무지에서 온 갈등과 증오와 대립의 부조화가 끓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저들의 노력을 중지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 속에는 끔찍한 전쟁의 장면들이 지나간다. 아마도 1, 2차의 세계대전 장면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 대원들이 에밀과 대화하고 있는 시대는 1890년대다. 그러니까 미래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영상 속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아주 평화롭고 이상세계 같은 장면이 나타난다. 인류의 미래는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평화로운 세계입니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에밀 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서 어떤 진흙뭉치 같은 것을 꺼낸다. 그 진흙뭉치로 무엇인가를 빚어내는데, 하나의 사람 형상을 하고 있다. 그는 한동안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고 있다가 들어올리더니 그것을 향해 숨을 불어넣는다. 그러자 그 인간 모양의 형상이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한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 어안이 병병한 대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느님이 사람의 형상을 빚어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산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방치해 둔다면 그 예술품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든다면 그 작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작품이 신적인 질서 안에 있는가를 항상 지켜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생명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걷어 치우고 참 하느님의 모습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사의 말이 끝나자 인형의 작동도 멈춘다.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전자책/종이책 모두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